

성호세마리아의 아기 예수님과 성미카엘 성 당의 구유

성호세마리아는 젊은 사제였을 때부터 나무 조각 아기예수님에 대한 신심을 가져 자주 그 성상으로 강복을 주시곤 하였다. 마드리드에 있는 성 미카엘 성당에는 오푸스데이 설립자의 모습이 담긴 구유가 만들어져 인상적이다.

2009-12-24

성호세마리아의 아기예수님.

성호세마리아는 젊은 사제였을 때 부터 나무 조각 아기예수님에 대한 신심을 가져 자주 그 성상으로 강복을 주시곤 하였다. 혼자일 때는 그 성상을 안고 노래해드리며 춤을 추는 아이같은 신심을 보여 주셨다. 우리 인간을 필요하시고 싶다는 예수님의 마음에 응답하시는 것이다. 이 동영상은 성탄 신심에 대한 모습을 담고 있다.

성 미카엘 성당의 구유 마리아 돌로레스 꼬리아도는 이 동영상에서 어떻게 성호세마리아의 모습을 담은 구유가 만들어졌는지 설명한다.

pdf |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
from [https://opusdei.org/ko-kr/article/
seonghosemariayi-agiyesunimgwa-
seongmikael-seongdangyi-guyu/](https://opusdei.org/ko-kr/article/seonghosemariayi-agiyesunimgwa-seongmikael-seongdangyi-guyu/)
(2026-3-2)